"95 경희의 도약을 말한다"

세계화와 국제화의 변화속에서 서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해인 95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학원장과 총장 그리고 양캠퍼스 차기 총학생장의 신년사를 들어본다. 〈편집자〉

경희 재도약과 화합의 새해

조 영 식
〈학 원 장〉

밝은 미래 여는 등대역할 다해야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해

희망과 서기가 이린 199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경희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금년은 조국광복 50주년, UN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질곡속에서도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고, 특히 교육계도 사회발전의 견인차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화, 개방화로 특징지어지는 오늘의 인류사회 속에서 향후 50년을 생각할 때 새마음으로 새출발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새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동북아시대의 주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명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학사회도 교육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학평가의 해로서 우리 경희인에게는 가일층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당국에서도 세계화를 향한 의욕적인 청사진을 내걸고 명문경희, 세계속의 경희를 일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초창기에 우리가 오로지 화합과 협동만으로 황무지 위에 오늘의 대경희를 이룬 것처럼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세계의 명문을 향해 매진의 노력으로 재도전할 때가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희가 과거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잘살기운동을, 근대화작업이 이루어져 성장에서 오는 부작용이 표출될 때에는 맑은 사회운동을 그리고 세계가 이념대결을 통해 종말적인 제3차 핵대전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는 세계평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여기에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고도의 과학기술문명속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인명부재의 사회가 되어감을 염려하면서 또한번 도덕과 인간성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 금년에는 우리 정부는 물론 UN, 유네스코, 세계대학총장회, 밝은사회국제클럽이 우리 경희와 손을 잡고 대학생들의 도덕재건을 위한 국제대학생 지도자회의와 UN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전세계의 지도자와 지성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도덕과 인간성회복 국제학술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현대사회의 종말적인 징후를 거두어 건전하고 인간적인 인간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경희의 새로운 인류사적 소명을 의미합니다.

친애하는 경희인 여러분!

올해년 바로 올해는 학내외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스러운 세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 조국과 온 인류사회를 위해서 도덕과 인간성회복운동에 앞장서서 보다 밝고 풍요롭고 보람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흔연히 앞장섭시다.

꺼져가는 양심의 불을 다시 켜고, 이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20세기의 종말적인 위기들을 말끔히 걷어내어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데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다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우리 모든 경희가족의 가정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참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미래지향적 경희 창조

공 영 일
〈총 장〉

무한경쟁시대 특성화 주력
대학종합평가 낙관적 전망

지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수대교 붕괴, 인천 및 부천해무서의 비리사건, 지존파·온보현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메니저 살해사건 등 각종 병리현상들이 봇뜬처럼 터져 나온 한해였습니다. 학내적으로도 종합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땀을 흘려 일했으며, 경희역사상 처음으로 발전계획안 공청회를 갖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는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WTO체제 출범, 두드러지기 시작한 경제블록화 현상 등 개방,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학들도 나름대로 대학에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개방과 변화에 시동을 건 한해 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의 업적을 간략히 짚겁해보면 우선 제도개선에 주력했는데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하여 2학기에는 전면적인 강의평가를 실시했고, 국내 대학중 최초로 계약교수제와 강의 및 연구전담 교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수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옴부즈맨과 학생청원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공개행정과 학생들의 권익신장에 주력했고, 조교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1988년에 발표된 대학발전계획을 새롭게 가다듬어 경희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원 모두가 보여 공청회를 가졌음은 물론 21세기와 개교 50주년을 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후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 한해였다고 자평합니다. 바야흐로 사회와 세계는 인간성 상실과 질서의 파괴로 궁동의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성이 인간의 존재가치와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와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파괴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최고의 지성과 질서, 창조 그리고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이 이제야말로 앞장서서 사회를 계도하고 국가와 세계인류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년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 첨예한 공동 안건들이 아기될 것으로 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들은 좋은 성적으로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며 아울러 무한 경쟁시대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종합평가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것이며,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미래에 대한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지난 한해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변화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연속되지 않는 오늘은 있을 수 없으며 오늘이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희가 그동안 이룬 업적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경희의 면면한 역사를 위해 오늘의 노력은 최선을 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매우 실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일지라도 더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도 결코 실수나 관용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구호에만 열심이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는 않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대학이 평가에서 탈락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평가에 통과하는 정도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미래를 예비해야 합니다.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한 우리대학이 지향하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해서도 후회없는 한해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다같이 해야합니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경희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합니다.

커다란 희망 작은 결심

배 정 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새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함께 작은 결심을 가지게 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가짐이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 한해를 이렇게 설계해 보겠다는 이전과 다른 다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거때 보았던 학우들의 모습과 여러가지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풀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되고 어떤 문제도 학우들과 함께 풀어가겠다는 다짐을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짜임새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제, 해방 50주년, 지자체 등으로 굵직한 해가 될 95년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새내기 새로 배움터 등 새내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제한적인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탈피하여 이제는 새내기들의 창조적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써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으로 새내기 사업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새내기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컴퓨터 강좌나 영화상영, 교양강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업내용을 더욱 구체화 시키기 위해 타학교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사업을 진행할 준비 일꾼들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잘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의 아부운 기억들은 가슴에 묻어두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야 합니다. 총학생회도 건강하고 신나는 경희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시고 27대 총학생회의 변화의 몸짓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강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배움터지향

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27대 총학생회는 지금 함께 일할 사람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진정 해볼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 봉일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과 함께 체계가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인선작업을 진행중입니다.

21세기 위대한 경희의 원년

김 상 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위대한 경희의 서막을 열 95년을 맞이하여 1만 학우를 포함한 모든 경희인들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학은 순수한 지성과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그 역할과 위치를 새로이 찾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한 비판정신이 존재해야 하며, 그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험정신을 실현해 가야 한다. 경희 제27대 총학생회는 미래 대학사회의 표본과 학생회의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선거시 천명했던 공약사업을 열심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완전한 이행만이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중장기 사업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는 교육 개방, 대학평가제, 학원자율화 정책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복병들을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가가 곧 경희의 도약과 퇴보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총학생회장의 역할은, 경희 전구성의 노력을 결집하여 올바른 대학문화를 정착하고 이로써 경희의 발전된 미래를 이끌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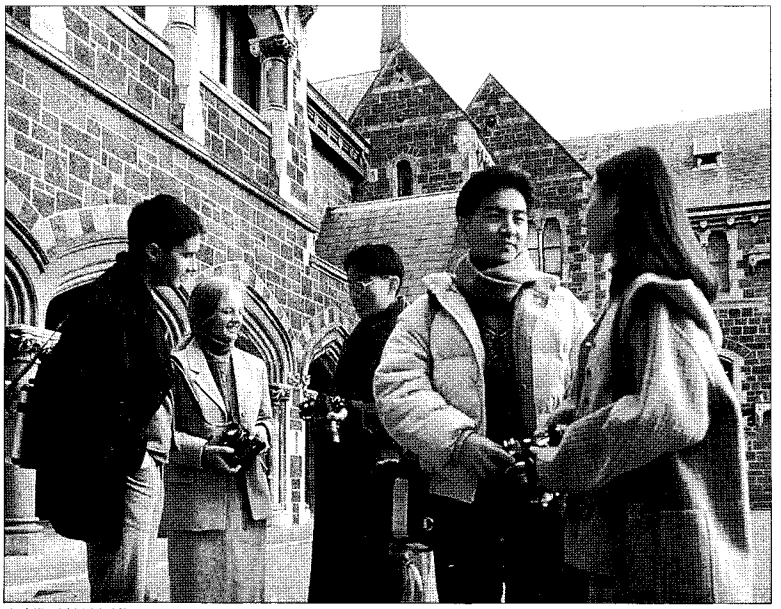
지난 80년에 배움터를 마련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수원캠퍼스 경희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젠 어느 유수 대학 못지않은 대규모 종합대학이 되었지만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열악한 교통상황, 학생복지문제 등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교육여건에 관한 문제들이 무수히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경희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를 위해 경희 27대 총학생회는 이미 이로써 경희발전의 핵심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희 제27대 총학생회는 95년 한해를 경희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경희 발전의 저해 요소 제거와 동시에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만드는 기초작업에 경희인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약 완전이행으로 내실화 기틀마련

체이스컬트와 함께한 열네번째 동아리



외국어대학교 사진동아리 '누리에'

온세상 그대로를
사진에 담고싶다.

한장의 정직한 사진을 위해 정직하게 노력한다.

카메라를 들고 나서는 그들에겐 우노리가 피사체이다.

외국어대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에」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의 세상을 정직하게

필름에 담아,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고싶은 것이 그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맑은 공기와 돌냄새까지도 친하게 느낄 수 있는 사진,

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를 찾아 먼 길을 재촉하는 것도

이런 한 장의 이유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진,

정직함이 충만한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런 사진 역시 정직한 노력의 결과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외국어대학교 사진동아리 「누리에」
동아리 이름에서부터 온세상을 통째로 카메라에 담아버리겠다는
호기로움이 느껴지는 무심함은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라면
어디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정열과 사진에 대한 사랑이 자못 뜨겁다.

젊은 젊은이들을 위한 옷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

체이스컬트 카탈로그 문의 및 관심이 있는 대학 서클이나 학과는
체이스컬트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양식에 신청해 주십시오.